

화사한 봄꽃에 취하고... 상큼한 봄맛에 빠지고...



강원 삼척 맹방 유채꽃



경남남해 영지마을 벚꽃



경북김천 지두꽃 축제



인천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전남 강진 백련사



충북 영동 배꽃터널

봄이다. 따뜻한 햇살과 가벼워진 옷차림, 여행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다. '봄' 하면 꽃이 생각나고 '꽃' 하면 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한국관광공사가 '꽃따라 맛따라꽃구경도 가고 맛기행도 하고'를 테마로 4월에 가 볼 만한 곳을 골랐다.

▲봄꽃에 눈이 환하고 봄맛에 입이 즐겁고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대)

4월 중순이면 충북 영동 매천리에 배꽃과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하얀 배꽃과 연분홍 복숭아꽃이 들쭉날쭉한 풍경은 인상과 화가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매천리 배 밭은 광양 매화 밭이나 하동 벚꽃 길처럼 이름난 관광지라 아니라 농부들이 가꾸는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인지 시골 풍경과 어우러진 배 밭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멋을 풍긴다.

봄꽃 여행을 즐겼다면 봄 별미에 빠져보자. 금강 자락에 기대앉은 영동을 대표하는 음식은 도리뱅뱅이와 어죽이다. 피라미를 노릇하게 튀긴 도리뱅뱅이는 비린내 없이 고소하고, 쏘가리와 동자개(빠가사비) 등을 삶아 만든 어죽이 입맛을 돋운다. 요즘 영동에서 뜨는 '자연산 능이버섯 전골'은 한 숟가락 떠먹으면 '아,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영동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시음해 볼 수 있는 와인코리아, 국악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판소리 등 흥겨운 우리 가락을 느낄 수 있는 영동국악체험촌도 봄 여행의 정취를 더한다. 영동군청 문화체육관광과 043-740-3223

▲유채꽃, 벚꽃 그리고 낭만기도와 바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꽃놀이하기에 좋은 시기다. 삼척은 낭만기도에 봄이 더한다. 특히 맹방유채꽃마을에서는 4월 8~17일 유채꽃축제가 열린다. '유채꽃 하면 제

주도나 청산도를 떠올리기 쉬운데, 맹방유채꽃마을은 유채꽃과 벚꽃 그리고 바다를 볼 수 있는 봄날 여행지다. 삼척 시내에서 출발해 한티고개를 지나면 다다른다. 제일 먼저 도로를 따라 4.2km가량 이어진 벚꽃 길이 환영 인사를 한다. 벚꽃 길 왼쪽으로 7.2ha에 이르는 유채 밭이 노란 바다처럼 펼쳐진다. 꽃밭 사이에 산책로를 내 자유로이 거닐며 사진 찍을 수 있다. 축제가 끝나도 4월30일까지 축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전남맹방유채꽃마을 070-4118-0105

▲벚꽃 바다 남해로 떠나는 미각 여행 (경남 남해군 남해읍·설천면·이동면 일대)

남해는 꽃 천지가 된다. 연분홍 벚꽃을 지나, 싹트고난 유채와 빨간 튼터를 만난다. 왕지벚꽃길에서 보는 쪽빛 바다와 아름다운 벚꽃은 보물섬 남해를 환상의 섬으로 만들어준다. 남해를 눈과 혀로 즐긴 뒤에는 남해유대문화관에 둘러 문화의 향취를 느껴보면 어떨까. '구운몽'을 지은 서포(西浦) 김만중을 비롯해 남해로 유배 온 문인들의 작품과 생활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 현형색색 튼터를 보며 산책하기에 좋은 장평스튜디오, 남해의 명물 마늘을 살펴보는 보물섬마늘나라, 세계의 탈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남해국제탈공예전시관은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80-8801

▲자두꽃 향기에 취하고 지례 흑돼지에 반하

다. 김천 이화면리 마을 (경북 김천시 농소면 벽봉로)

김천은 자두, 포도, 복숭아 같은 과일이 많이 재배되는 고장이다. 그중 자두는 생선탕이나 품질이 전국에서 손꼽힌다. 자두꽃 향이 만 리를 간다고 '이화면리'라 부르는 김천시 농소면 일대는 4월이면 달콤한 가루를 뿌린 듯 자두꽃이 하얗게 피어났다. 김천자두꽃축제에서는 노래자랑, 자두 음식 만들기, 자두 꽃길 걷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4월9일로 예정됐다.

지례 흑돼지도 김천의 명물이다. 지례면에 흑돼지 전문식당 15곳이 모여 있다. 메뉴는 대개 왕소금구이와 고추장불고기다. 소금구이로 먹는 삼겹살의 비계가 인절미처럼 차지고 쫄깃하며, 목살은 퍼떡하지 않고 탄력 있으면서도 부드럽다. 연탄불에 구워주는 고추장불고기는 적당히 단맛과 매운맛에 불맛이 더해져 밥도둑이 따로 없다. 1인분(180g)에 8000~1만원이다. 직지사, 청암사, 직지문화공원 등을 연계해서 여행할 수 있다. 김천시청 새마을문화관광과 054-420-6633

▲황홀한 진분홍빛 꽃길을 걷다. 강화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강화도 6대 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고려산은 해마다 수많은 상춘객이 찾는 명소다. 북쪽 산등성이를 따라 400m가 넘는 고지대에 진달래 군락이 형성되어 봄이면 온 산이 진분홍빛으로 변한다. 바람을 따라 분홍빛 물결이 일렁일 때면 마

음도 고운 꽃 빛으로 물든다. 4월 12~26일에는 고려산진달래축제가 열린다.

꽃구경을 하고 나면 주꾸미연포탕과 맨땅이회 무침으로 산행의 피로를 풀어보자. 제철을 맞아 일이 붐벼하게 맨 주꾸미가 입맛을 다시게 한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강화역사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에 둘러보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137호)도 지적에 있다. 가이드와 함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고려공마음을 탐방하는 강화아이기투어도 흥미롭다.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강화평화전망대도 둘러볼 만하다.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32-930-3563

▲강진의 봄은 '게미'가 있다 (전남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길)

게미는 '짬을수록 고소한 맛' 그 음식에 녹아 있는 독특한 맛을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다. 산해진미가 올라오는 강진 한정식은 전라도 음식 중 최고로 손꼽힌다. 강진의 봄 풍경에도 게미가 있다. 들뜬에는 보리가 속속 자라고 산에는 진달래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주작산(475m)과 덕룡산(433m)은 알려지지 않은 진달래 명소다. 설악산 공룡능선 부럽지 않은 기암괴석 사이에 핀 연분홍 진달래가 화룡점정이다. 만덕산 아래 백련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 숲이 일품이다. 1500여 그루에서 동백꽃이 뿜뿜 떨어지면 길은 붉은등을 켜 듯 환하다.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061-430-3114 /이성주 기자



2016 전북 e스포츠 페스티벌

2016. 4. 7~10
전주실내체육관



2016. 4. 10 PM 1:00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 배틀

2016. 4. 7 PM 4:30 / 2016. 4. 7~9 PM 5:00
LoL Champions Korea spring 2016

LoL Champions Korea spring 2016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 배틀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ROX vs JIN AIR	Afreeca vs CJ	KT vs Kongdoo	한국팀 VS 중국팀
Kongdoo vs SAMSUNG	SKT vs SBENU	JIN AIR vs Longzhu	

예매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전국 최대의 e스포츠 열기를 함께 느껴보세요!